

## 【 2019 공인노무사 합격 고동경 】

1 차 시험 점수	노동법	사회보험법	민법	선택과목(경영학개론)
	84	88	68	80
2 차 시험 점수	노동법	인사노무관리론	행정쟁송법	선택과목(경영조직론)
	273.43	194.54	180.97	185.01
	총점	833.95	평균	61.77

### 주제1. 수험 시작 동기와 수험 기간

#### - 수험 시작 동기

회사에서 인사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연월차 사용, 평균임금 산정 등 근로자와 회사 간의 분쟁을 겪을 때마다 노동법에 대한 갈증이 커지게 되었고, 전문성과 재량권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업무에 임하는 노무 및 인사관리 전문가가 되고 싶다는 생각으로 재직중에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 수험 기간

‘17년 2월 1차 공부를 시작해서 ‘19년 8월까지 공부를 하였으니 총 2년 6개월 정도의 수험기간을 보냈습니다. 수험기간 상세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 ‘17. 2월~‘18. 6월 중순 / 회사를 다니면서 업무와 수험 병행
- ✓ ‘18. 6월 중순~‘18. 12월 / 개인 사정으로 인한 육아
- ✓ ‘19. 1월 중순~‘19. 8월 / 육아와 수험 병행

### 주제2. 과목별 학습 방법

과목별 공부방법은 합격에 가까워진 현동차 시절 공부방법들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 읽는 분들께 도움이 되실 것 같아 현동차 시절 공부방법 및 강의들을 기준으로 서술합니다.

## 1. 노동법

1기는 온라인으로 듣고 3기 실강 수강

노동법은 법규정을 명확히 숙지하고, 사안의 해결을 풍부하게 하는 데에 집중을 했습니다.

제가 혼자 만들어본 표현으로서, '모래시계형 답안'을 쓰고자 노력했습니다. 모래시계형 답안이란 '논점의 정리'와 '사안의 해결' 부분이 풍부하고 정확하게 잘 작성된 답안을 말합니다.

아무래도 논점의 정리가 잘 써진 답안은 쟁점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는지가 잘 드러나 있기 때문에 채점자에게 처음부터 좋은 인상을 주게 되고, 마지막에 사안의 해결 부분이 잘 작성되면, 어찌 됐든 문제를 제대로 해결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채점자가 좋은 점수를 부여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수험생들이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지만 법규정을 명확히 숙지하고자 노력했으며, 직접적으로 연관된 법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이라도 답안에 꼭 적시하고자 노력했습니다.

## 2. 인사노무관리론

0기, 1기는 온라인으로 듣고 3기 실강 수강

인사를 포함해 경영학 과목의 경우에는 큰 틀에서 이해하고 풀어서 서술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집중해서 공부하고, 답안 쓰는 훈련을 했습니다.

최종락 선생님의 명쾌한 강의를 통해 이해도를 최대한 높이하고자 노력했고, 시험에 가까워질수록 그것을 저만의 언어로 풀어낼 수 있도록 훈련을 하는 데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박경규 교수님의 신인사관리를 다독하면서(약 7회독) 인사관리의 전반적인 틀에 익숙해지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3. 행정쟁송법

0기, 1기는 온라인으로 2기, 3기는 실강 수강

노동법과 같이 법과목이기에 역시 법규정을 명확히 숙지하고, 포섭을 풍부하게 하는 데에 집중했습니다.

특히 행쟁의 경우, 2차공부 시작 시 M 강사님으로 시작하였으나, 한 번 낙방한 뒤에는 정선균 박사님 강의로 바꿨습니다. 두 분 다 좋은 선생님들이시지만, 저에게는 기본적인 내용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면서 행정쟁송법의 기본적인 틀을 잡아주시는 정선균 선생님의 강의를 너무 잘 맞았습니다.

그리고 행쟁의 경우 보통 행정소송법만 집중해서 보고 행정심판법은 가볍게 보거나, 특히 행정소송 중에서도 당사자 소송 등 중요하지 않다 느끼는 부분들은 흘려 보내는 수험생들이 많은 듯 하였으나, 저는 불안한 마음에 모든 부분을 빼놓지 않고 꼼꼼하게 보고자 노력한 것이 2차시험 때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 4. 경영조직론

0기, 1기는 온라인으로 듣고 3기 실강 수강

경조 역시 큰 틀에서 이해하고 풀어서 서술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집중해서 공부하고, 답안 쓰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도 인사보다는 암기가 강조되기에, 용어 정의 등을 책에 있는 그대로 외우고자 특별히 신경을 썼습니다.

4과목 중 전략과목을 정해서 공부하기보다는 빠지는 과목이 없도록 균형을 맞춰 공부하고자 노력했습니다.

### 주제3. 시기별 학습 방법

#### - 기본방향: 시간을 정해 다독

쓰는 공부방법은 기억에 잘 남고 확실한 방법이지만 개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었기에 시간을 최대한 아끼고자 쓰기보다는 읽은 뒤에 혼자 중얼거리거나 머리로 공부한 내용을 리마인드 시켜보는 방식으로 공부했습니다.

일정 시기별로 과목별 회독 계획을 세운 뒤 그에 맞춰 공부를 진행해 나갔으며, 회독수가 많아질수록 소요되는 시간이 조금씩 줄어들고, 이해가 깊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회독은 기본서를 반복해서 보았으며, 효과성(정독)과 효율성(중요독)을 모두 잡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우리 시험은 사실상 상대평가이기에 합격을 위해서는 남들이 못 쓰는 내용도 조금이라도 쓸 수 있어야 하고, 남들이 다 아는 중요한 내용은 더욱 잘 써야 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정독을 통해 빠뜨리는 부분 없이 꼼꼼하게 기본서들을 반복해서 읽었으며, 2~3기에는 모의고사와 함께 중요한 내용(A~B급) 위주로 읽는 중요독을 많이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기 후 시험 전까지는 정독과 중요독을 번갈아 가면서 정리를 했습니다.

#### - 2기, 3기 모의고사

2기, 3기 모의고사는 실정에 대비한 좋은 연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모의고사는 잘 나오거나, 못 나오거나 일희일비하지 않는 편이었고 오늘 못 쓴 부분을 내가 보완해서 다음 번에 쓸 때는 제대로 된 답안을 쓸 수 있을 것인지에만 집중했습니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모의고사와 실제 시험 점수는 비례하지 않는 경우가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경영조직은 최고답안을 작성한 적도 있을 뿐 아니라 모의고사 점수가 다른 과목들에 비해 비교적 잘 나오는 편이었고, 인사는 오히려 모의고사 점수가 저조한 편이었으나, 실제 시험에서는 인사가 경조보다 훨씬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모의고사는 그냥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고 보완하는 용도로만 활용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수험기간 동안의 정신건강에 좋은 듯 합니다

#### 주제4. 수강했던 노무사단기 강의 추천

저는 노동법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들은 모두 노단기 강사님들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 **최중락 강사님 (인사, 경조)**

경영학을 비롯하여 두 과목에 대한 틀을 잡고 이해도를 높이기에는 노무사 수험가에게서 최고 수준의 강의를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로, 강의와 기본서 내용이 좋았습니다.

모든 강의, 기본서 내용, 연습문제 책 내용이 높은 퀄리티를 가지고 있고, 수험에 대비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정선균 박사님 (행정쟁송법)**

정박사님 역시 행정쟁송법에 대한 틀을 잡고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정말 좋은 강의를 해주십니다. 특히, 수험생들이 헷갈리거나 어려워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잘 알고 계셔서 그 부분들을 차근차근 이해할 때까지 천천히 설명해주시고, 모의고사 때도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뤄주셔서 좋았습니다. 우선 명확한 개념을 이해하고, 법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나니 모든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느낌이 들어 좋았습니다.

2~3기 모의답안의 분량이 꽤 길다는 약간의 단점을 제외하고는 정선생님의 강의 등은 딱히 흠 잡을 점이 없을 정도로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본서도 수험과 관련성이 높은 내용 위주로 컴팩트하게 구성되어 있어 양적인 면에서도 부담이 많이 없어서 좋았습니다.

#### 주제5. 후배 예비 공인노무사들을 위한 학습 팁 및 하고 싶은 말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현직에서 더욱 빛나는 노무사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 노무사단기

업무, 육아 등으로 인해 정말 쉽지 않은 수험기간이었지만 지금 제 옆에 있는 소중한 가족들과 미래에 있을 좋은 결과만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견뎌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생하며 노력한 기간이 합격이라는 결실로 다가와 정말 기쁘네요.

저는 스터디는 따로 하지 않았지만, 운동은 틈틈이 꾸준히 한 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철봉(매달리기, 턱걸이) 및 걷기 운동 등 몸에 무리가 많이 가지 않으면서 스트레칭 효과나 몸을 풀어줄 수 있는 운동들을 했습니다. 부담 없는 운동들이었기에 시험 전까지도 꾸준히 했습니다.

이 글을 읽으며 다음 해의 합격을 꿈꾸시는 모든 분들께서도 미래의 긍정적인 결과만을 생각하면 묵묵히 정진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며 글을 마치고자 합니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